

신문 기사를 통해 나타난 종교조직의 위기 유형과 대응 전략*

불교, 천주교, 개신교를 중심으로

이영승 천주교대구대교구 신부**

김소정 경북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신문 기사를 통해 나타난 종교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유형화하고, 종교조직이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위기 대응 전략을 사용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콤즈(Coombs)의 상황적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SCCT)을 분석 틀로 활용하였으며 신문 기사의 위기 보도를 사건 단위별로 분류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종교조직의 위기는 소문, 자연 재해, 악의, 도전, 사고, 위반, 교리위협외의 일곱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위기의 유형 중 위반의 사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종교조직의 위기 대응 전략은 사과, 개선, 정당화, 변명, 부인, 공격, 침묵, 성찰 및 쇄신의 여덟 가지 유형으로 주된 위기 대응 전략은 침묵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종교조직 맥락에서 위기 및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위기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이론적 틀을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KEY WORDS 위기 커뮤니케이션 • 위기관리 • 종교 위기 • 위기 유형 • 위기 대응 전략 • 내용분석

* 본 연구는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 passtory@knu.ac.kr, 제1저자

*** sojungkim@knu.ac.kr, 교신저자

1. 서론

한국 사회의 종교에 대한 신뢰와 불신에 관한 연구를 한 박준성, 김의철, 정태연(2007)은 한국 사회에서 종교는 일반적인 종교의 역할 이상으로 영향력이 있고, 한국인들 역시 그러한 종교의 역할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곧 한국 사회 안에서의 종교의 영향력이 한국인들의 삶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박준성, 김의철, 정태연, 2007). 공식적인 국교(國敎)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한국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종교 단체들의 크고 작은 위기상황이 곧 한국인들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캐슬린(Kathleen, 2005)에 따르면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조직이라 하더라도 시기의 문제일 뿐, 위기 상황에 언제든지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 시대의 도래는 조직이 처한 위기 상황을 더 빠르게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이는 위기 상황에 처한 조직들에게는 기존에 행해졌던 위기관리의 차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박노일 · 정지연 · 김보경, 2012).

종교 단체들 역시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실제로 밀레니엄 시대에 이르러, 한국 사회에서의 종교는 신자 수의 감소, 신앙심의 감소, 신자 재교육의 어려움과 같은 기존의 위기상황들(오태순, 1990; 이혁배, 2005; 정희완, 2017)과는 다른 교회 제도의 문제, 종교 지도자들의 탈선, 종교 단체에 소속된 신자들의 문제와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위기 상황들에 처해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에서는 종교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다. 정부와 지자체 단체장들은 종교 집회 금지라는 강력한 권고를 내리기도 하였지만, 일부 종교 단체들은 대규모 집회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국민들은 신앙의 자유에 앞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고 결국 이런 불안감이 일부 종교들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면서 타종교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한영만, 2020).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감염병 확산의 원인을 종교에 돌리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종교 단체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비판(박문수 · 유승무 · 이상철 · 이미영, 2020)은 위기상황에 대한 종교의 대응 능력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다.

종교별로 신뢰와 불신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종교에 대한 불신의 주요 원인으로 종교 지도자의 탈선, 기관 혹은 단체의 비윤리적 행동, 특정 종교에 속한 신자들의 믿음과 일치되지 않는 행동 등이 있다(박준성·전미연·정태연, 2010). 최근 일부 종교 단체들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은 종교 불신을 가속화시키는 사건이었으며 이와 같은 종교에 대한 대중의 불신은 현 종교계가 직면한 큰 위기임이 분명하다. 종교 단체의 위기 상황에서 과연 종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종교는 단순히 그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넘어서는 존재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종교 단체와 관계된 사건·사고들은 기업이나 여타 조직들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며 특히 종교 단체의 위기들은 신자 수의 감소, 조직 체계의 간소화와 해체 등과 같은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윤리적인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와 같이 종교 단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기 상황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종교의 위기 요인들이 종교의 불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박준성·전미연·정태연, 2010; 조영현, 2010; 강호숙, 2020)에도 불구하고 종교계에서는 위기 상황 발생의 원인 분석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어떠한 위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지, 그에 적합한 위기 관리 대응 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리조직 맥락에서 수행되었던 위기 커뮤니케이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종교조직 맥락에서 위기 유형 및 위기 대응 전략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을 통해, 국내 불교, 천주교, 개신교의 종교조직이 어떠한 위기 유형에 처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종교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위기 유형들을 유목화하고자 한다. 또한 각 종교 조직이 위기 상황 시 구사한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종교조직 맥락에서의 위기 대응 전략을 분류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종교조직의 위기

언론을 통해 드러난 조직의 부정적인 보도는 대중들에게 그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당연하나 종교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는 여타 다른 조직들에 비해

대중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안광현, 2012). 이는 한국사회 안에서의 독특한 종교의 위치 때문이기도 한데, 한국사회 안에서 여러 종교들은 서로 공존하면서 한국인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이다(박준성 외, 2007).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 전문사역을 하는 지도자의 10대 청소년 성폭행 사건이나(윤수경, 2015), 한국기독교총연맹(한기총) 회장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금품살포와 관계된 선거부패(안광현, 2012), 미국 보스턴 교구의 아동 성추행 사건(오세일, 2012), 대구 시립희망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문제(조민제, 2017), 템플스테이 사업 확장을 위해 지원 받은 정부의 예산 횡령 및 리베이트 사건(김준호, 2016), 국내 코로나19 감염증의 뇌관이 되어버린 신천지 교회(홍승진, 2020) 등, 종교와 관계된 사고들은 종교조직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 조직의 위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종교 조직에서의 위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향후 종교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의 관점과 범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위기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위기의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위기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급박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을 때 조직이 추구하는 핵심가치와 존재에 중대한 위협이 되며, 공중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PR 분야에서의 위기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종교조직의 위기를 종교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위기 상황이나 사건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특정한 조직들의 위기에 대한 연구들은 그 조직과 관련된 위기 상황들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방신웅,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교 조직의 위기를 “종교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상황들로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않을 경우 종교가 추구하는 핵심가치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관련 공중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 혹은 상황”으로 정의한다. 종교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상황이라는 것은 종교와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교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위기는 종교 조직의 위기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특정 종교가 토지를 증여받은 뒤, 토지를 기증한 개인이 불법으로 취득한 부동산이었음이 밝혀졌다면 그것은 토지를 기증한 개인 비리의 영역이며, 종교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종교의 위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2) 위기의 대상으로서의 종교조직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종교에 몸담을 수 있고, 각 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 종교 인구에 대한 최근 통계인 2021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의 남녀 중 종교가 있는 사람은 50%로 국민의 절반이 종교에 몸담고 있다. 각 종교별로 살펴보면, 개신교 신자가 가장 많고 (20%), 이어서 불교(17%), 천주교 (11%) 등의 순이며, 원불교, 천도교 등 기타 종교 인구의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한국리서치, 2021). 이는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상황임에도 특정 종교에 몸담고 있는 비율이 높고, 이는 세 가지의 종교가 종교 인구 비율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 간의 비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 역시 일부 모든 종교에 대해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의 종교가 우리나라의 종교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10년 이내의 종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단일종교에 대한 연구들을 제외하고 다종교 간의 비교를 통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개신교, 불교, 천주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노길명 2010; 이원주 2011; 성해영 2015; 염창훈, 구국원, 권오병, 2018; 이호갑, 기현희, 이도희 2020). 이는 단순히 모집단 표본의 수가 많아 연구에 용이하다는 점도 있지만, 위기의 대상이 종교조직만이 아니라 그 종교에 몸담고 있는 종교인들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위기에 직면할 확률도 동시에 높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국내의 종교조직의 위기의 유형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집중되어야 할 종교 역시도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교조직을 불교, 천주교, 개신교로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상황적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근거한 종교조직의 위기 유형

어떠한 조직이든 조직의 특성, 업무, 관련 공중들의 성격에 따라 조직에 맞는 위기 유형 분류 체계를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김영옥, 2003). 콤즈와 할러데이(Coombs & Holladay, 1996)는 조직의 위기 상황에서 위기의 발생 원인과 위기에 대한 통제 기능의 여부에 따라 사고, 위반, 과실, 테러 등으로 위기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후속 연구를 통해서

조직의 책임감 수준에 따라 자연재해, 루머, 악의, 사고, 범죄 등의 다섯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Coombs, 1999). 콤즈와 할러데이(Coombs & Holladay, 2004)는 상황적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 SCCT)을 통해 위기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각 위기 유형별 효과적인 위기 대응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조직의 평판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SCCT에 따르면 위기 유형에 따라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 수준이 다르게 인식되고 이러한 책임 수준에 인식에 따라 방어적 전략이 효과적인지, 수용적 전략이 더 나은 선택인지 판단해야 한다. SCCT는 조직의 위기 유형이 위기 대응 전략 선택에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보여준다.

종교조직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조직에 속한다. 따라서 종교조직의 위기 유형들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영리조직의 위기 유형 분류에 따르는 것이 적합하나, 종교조직은 그 나름의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종교조직의 위기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종교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종교조직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기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김영옥, 2006). 이를 위해 본 연구는 SCCT에서 제시하는 위기 유형을 기반으로 하여 비영리조직들의 위기 유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특정 조직의 위기의 유형화는 조직의 특성과 위기의 속성에 맞추어 분류할 수 있는데, 조직에 따라서는 해당 조직에서만 나타나는 위기의 유형들이 존재하기도 한다(김영옥, 2002). 종교조직은 기본적으로 조직 체계의 유지, 신자라고 불리는 특별한 성격을 지닌 공중과의 긴밀한 관계, 종교를 대표하는 성직자의 윤리적 문제, 종교별로 행해지는 다양한 복지사업 등과 관계된 위기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영리 조직에서 겪는 외부적 요인들로부터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종교조직에 있어서 위기의 유형화는 종교조직이 직면하는 다양한 위기 상황들을 공통적인 특성이나 분류기준에 맞추어 정리함으로써 종교조직이 직면하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기존의 종교 영역에서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사후 관리에 대한 연구나 원인 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종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효과적인 위기 대응의 선행 조건이 위기 유형의 인식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Coombs & Holladay, 2007), 종교 맥락에서의 위기 유형 분석은 위기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실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교조직의 위기 유형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문 기사들의 위기 보도들을 사건 단위별로 분류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기 유형별 발생 빈도를 분석함으로써 종교조직 내 주요한 위기의 특성을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같은 연구 주제라 하더라도 종교별로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에(박준성 · 김의철 · 정태연, 2007). 위기 유형 분포를 분석함에 있어서, 각 종교의 고유성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교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유형별 발생 빈도 및 종교별 위기 유형 발생 빈도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1. 신문 기사를 통해 나타난 종교조직에 발생하는 위기의 유형별 분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a. 위기 유형별 발생 빈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b. 종교별로 어떠한 위기 유형이 자주 발생하였는가?

4) 종교조직의 위기 대응 전략

종교조직의 위기 대응 전략이란 종교조직과 조직 내의 개인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수단들을 가리킨다. 이는 마찬가지로 PR 연구에서의 위기 대응 전략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종교조직의 위기 대응 역시, 위기 발생 전, 위기 발생 상황, 위기 발생 후까지를 포함한 종교조직의 체계적인 대응을 가리키는 것이다(방신용, 2012). 하지만 기존의 비영리단체들의 위기 대응에 관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종교조직 역시도 위기 대응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위기 발생 이후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진다(Shibury et al., 1998).

종교조직의 위기 대응에 관한 국내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분야는 원인분석이다. 이는 선제적 대응의 미흡함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후대책까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안광현(2012)은 한국 개신교회의 부패 현상을 교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개신교회의 부패 현상을 단순히 위기의 결과로만 바라보지 않고 추후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원인으로서는 접근을 시도한다. 또한 이러한 부패현상을 통해 더 큰 위기가 초래하지 않을 예방으로서 ‘투명성’, ‘체계적인 운영’, ‘원활한 의사소통’, ‘지속적인 교육’ 등을 사후대책으로 제시한다. 강병오(2012)는 설문조사를 통한 개신교의 신뢰 실추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도 개신교의 신뢰 실추의 원인 분석을 통해 이미 위기의 상황을 인지하고 다가올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적 공신력 회복’을 제안한다. 조현범

(2012)은 천주교의 신자 수 증가와 신자들의 참여율 변화에 대한 데이터분석을 통해, 종교가 ‘신자 수의 증가’라는 외적 성장보다는 감소하는 신자들의 참여율과 같은 내적 위기에 집중해야함을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박문수(2010) 역시, 한국 사회에서의 천주교의 인식에 대한 각종 사회 조사 결과와 미디어 텍스트 분석을 통해, 한국 천주교회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이미 일어난 위기의 원인들을 분석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앞선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한다.

특이하게도 불교에서는 위기 대응준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먼저 조기룡(2019)은 한국의 3대 종교인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이미 종교시장화 단계에 접어들어서 종교가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하며, 종교의 포교활동이 경제논리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연에 대처해야함을 주장한다. 염중섭(2018) 역시 4차 산업시대에 점점 더 줄어드는 출가인의 수에 대비하여 불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장점들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한다면 출가인 수의 급감과 탈종교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한다. 이는 위기 상황의 발생 전과 위기 상황 발생 중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이 또한 역시 위기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더 큰 위기에 대비하려는 대응전략이기도 하다. 이처럼 최근 10년 이내의 국내 종교조직의 위기 대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위기 발생 후의 원인 분석 및 사후 대책에 대한 고찰에 집중되어 있다. 다시 말해, 국내 종교조직의 위기 대응은 위기 발생 전 예방적 차원(proactive)보다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적 차원(reactive)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McGregor & Harvey, 1999).

조직은 모든 위기를 피할 수 없지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는 있다(이현우 · 최윤형, 2014). 이는 위기 유형에 따른 적절한 위기 대응 전략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대응 전략은 다가올 위기에 대한 선제적 예방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방신웅, 2012). 본 연구는 종교조직이 활용하는 위기 대응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 동안 종교조직이 어떤 위기 대응 전략을 사용하였는지 신문 기사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과 마찬가지로 세 개 종교 - 불교, 천주교, 개신교 - 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2. 종교조직은 위기 발생 시 어떠한 위기 대응 전략을 사용하였는가?

연구문제 2a. 위기 대응 전략별 사용 빈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b. 종교별로 위기 유형에 따라 어떠한 위기 대응 전략을 사용하였는가?

3.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및 방법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본 연구는 2016년 1월에서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종교조직들이 처했던 위기 상황에 관한 언론 보도를 분석하였다. 이는 2010년 중반부터 소셜 미디어가 개인의 일상 공유 플랫폼 역할을 벗어나 전통미디어의 대체 매체로서 공적 정보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아젠다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민지선·최성락, 2015).

내용분석 대상으로 대표적인 중앙 일간지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및 3대 종파의 주간지 가운데 창립연도가 가장 오래된 불교신문, 가톨릭신문, 기독교보를 선정하였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를 선정한 이유는 신문매체의 전국종합신문의 상위 매출액을 근거로(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신문기사들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본이며 논조의 편향됨을 지양하기 위해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대표적인 신문들을 모두 분석해야 한다는 연구자의 판단 때문이다(김진동·김남조, 2002; 김효진, 2008; 김진희·성정은, 2013; 김춘식·양승찬·이강형·황용석, 2012). 세 가지 종교신문 역시 다수의 종교신문 가운데 연혁이 가장 오래된 주간지들로 선정했는데, 이는 전국적인 여론 수렴과 형성의 지표가 되는 것이 판매 부수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본 연구에 사용된 신문기사 선정은 국내의 언론매체들의 대한 신문 기사 전문을 제공하는 스크랩마스터를 활용하였다. 스크랩마스터는 신문기사들의 전문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사 링크, 기사별 카테고리화, 검색어로 기사 검색 등 국내 언론매체들의 기사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신문 기사들을 다양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TF-IDF 분석을 통해 신문기사에 사용된 주요 단어들의 의미를 기반으로 각 기사 내용들을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기사로 함께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사를 취합하는 데에 용이한 면이 있다¹⁾. 각 종교별 위기를 체계적

1) TF-IDF란, 주제어 빈도 값인 TF(Term-Frequency)에 DF값의 역수인 역문서 빈도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곱한 값으로 특정 문서 내에서 단어 빈도가 높을수록, 전체 문서 중 그 단어를 포함한 문서가 적을수록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로 계산하는 수식이다(이성직·김한

으로 수집하기 위해 개신교의 경우 “기독교, 개신교, 목사, 교회”를, 천주교의 경우 “천주교, 가톨릭, 카톨릭, 신부, 사제, 수녀, 성당”을, 불교의 경우 “불교, 스님, 승려, 조계종, 사찰”을 키워드로 검색을 실시하였다. 2016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사들 중 종교와 관계된 키워드로 검색하여 수집된 기사의 양은 모두 89,501건이었다. 스크랩마스터가 제공하는 기사들은 종합, 정치, 외교안보, 광고, 국제, 사회, 경제, 부동산, 문화, 스포츠, 사람들, 기획, 오피니언, 미션 등 14개의 카테고리 분류된다. 이 중 ‘종합’과 ‘사회’가 ‘사건/사고’라는 하위 카테고리를 포함한다. 따라서 89,501건의 기사 중 ‘종합’과 ‘사회’ 카테고리의 하위 분류인 ‘사건/사고’에 해당하는 기사들로 수집대상으로 제한하되, AI 검색어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내용으로 분류된 기사들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사건/사고’로 분류되는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들이 위기와 관계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교조직의 위기와 관계된 12,867건의 기사들을 최종적으로 수집하였다. 이렇게 1차적으로 분류된 12,867건의 기사 중 매체별 기사의 양은 조선일보 3,821건(29.70%), 중앙일보 3,902건(30.33%), 한겨레 3,778건(29.36%), 불교신문 458건(3.56%), 가톨릭신문 251건(1.95%), 기독교일보 657건(5.10%)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류된 12,867건의 기사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부족함을 안고 있었다. 첫째, ‘속보’와 같은 짧은 형태의 기사들에서는 종교의 위기와 형태는 파악할 수 있으나, 종교의 위기 대응과 같은 연구 목적에 해당하는 유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둘째, 2020년 2월 이후의 기사들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들인데, 코로나19로 인한 특정 종교에 대한 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위기의 상황만을 이야기할 뿐 종교의 위기 대응 및 진행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들이었다. 따라서 12,867건의 기사들 중 같은 사건에 대한 보도들을 하나의 이슈로 묶어서, 그 이슈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12,867건의 기사들을 그룹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매체별 중복 기사들을 제외한 뒤, 나머지 기사들을 다시 사건(이슈) 단위별로 기사들을 묶어, 총 420개의 이슈들로 그룹화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매체에서 동시에 기사화된 경우를 중복으로 카운트하지 않기 위함이다(방신웅, 2012).

준, 2009). 스크랩마스터는 이러한 TF-IDF 분석과 함께 자체 AI 기술을 기반으로 뉴스의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 비율을 분석하여 시각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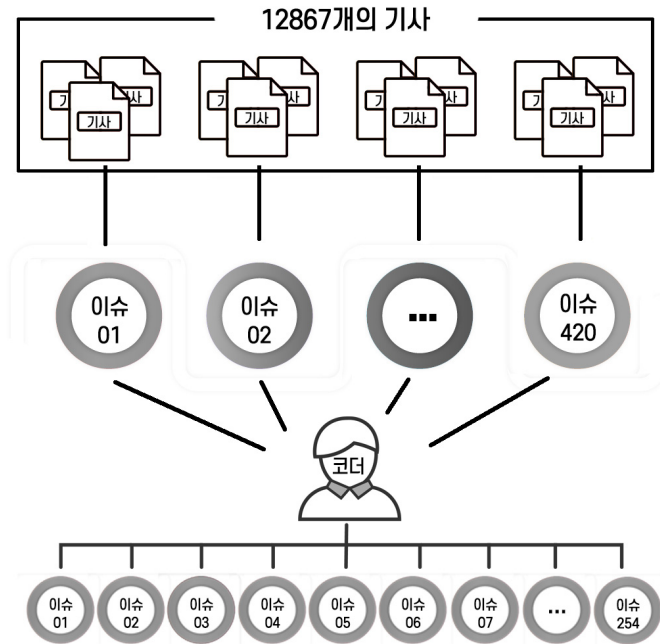


그림 1. 수집된 기사들의 이슈별 분류화 과정

420개의 이슈들 가운데 매체별 기사의 양은 조선일보 70건(17%), 중앙일보 115건(27%), 한겨레 92건(22%), 불교신문 66건(16%), 가톨릭신문 19건(4%), 기독교신문 58건(14%)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명의 코더들을 통한 코딩 과정에서 이 420개의 이슈들 가운데, ‘매체는 다르지만 같은 이슈에 대한 기사’, ‘한국종교의 위기와 관계없는 세계 종교의 위기에 대한 기사’, ‘제목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기사’ 등이 발견되어, 같은 이슈들을 중복으로 카운트하지 않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한국종교와 관계된 위기 이슈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기 위해, 매체는 다르지만 중복된 이슈들의 삭제 및 편집과정을 통해 총 254개의 이슈로 정리하여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그림 1 참조).

2) 코더 간 신뢰도

종교조직의 위기의 정의와 부합하는 위기관련 기사들을 이슈별로 정리한 데이터를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있는 학생 2명을 선정하여 각각의 위기 유형의 개념과 위기 대응 전략의

개념, 각 종교조직 구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분석 유목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420개의 이슈 중 각 종교별 이슈 10개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제공한 뒤, 코드북(code book)을 참조하여 종교의 구분, 위기 원인, 위기 유형, 위기 대응 전략에 대한 4가지 분석유목에 따라 예비 코딩을 실시하였다. 예비 코딩을 통해 각 유목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코더들은 최종적으로 각각의 항목에 대한 420개의 이슈들을 분석하였고 전술한 바와 같이 무관한 이슈 및 중복 이슈 삭제 과정을 통해 도출한 254개의 위기 이슈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분석 자료의 코딩 결과에 대한 코더 간 신뢰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종교분류 1, 위기 유형 .98, 위기 대응 전략 .947로 나타나 모든 유목에 있어 신뢰도의 카파값이 .9 이상이었기에 각 유목들은 내용분석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하였다.

3) 분석 유목

(1) 종교조직 구분

〈연구문제 1〉에서 종교조직 위기 유형의 종교별 차이, 〈연구문제 2〉에서 종교조직 위기 대응 전략의 종교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세 종교 유목과 한국 종교의 전체적인 위기를 다루는 이슈들의 분석을 위해 종교공통이라는 유목을 사용하였다. 이는 종교별로 고유한 특성이 존재하는 만큼, 종교별로 구분하여 위기 유형과 위기 대응 전략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의 종교에 관한 선행연구들 역시 이러한 주요한 세 종교를 유목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한 만큼, 본 연구에서도 세 종교로 구분하되, 정확한 유목 구분을 위해서 같은 의미를 지니지만 다르게 표현되는 단어들은 한 유목을 묶어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먼저 국내 개신교에서는 기독교라는 명칭도 함께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개신교와 기독교는 같은 의미로 묶어 분류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천주교에 대한 명칭도 가톨릭이란 단어와 함께 혼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둘을 같은 의미로 묶어서 사용하였다.

(2) 종교조직의 위기 유형

먼저 종교조직의 위기 유형에 대한 유목을 도출하기 위하여 귀인이론을 바탕으로 한 콤즈와 할러데이(Coombs & Holladay, 2002)의 위기 유형 분류차원을 적용하여 종교조직의 위기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는 공중이 위기 책임성을 해석하는 정도에 따라 위기 상황을 분류하는 방법으로써, 위기 대응 전략 역시 책임 수용 정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표지가 된다(방신웅, 2012). 본 연구에서 종교조직의 위기 유형 유목 도출을 위한 분류차원은 종교조직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따라서 콤즈와 할러데이(Coombs & Holladay, 2002)의 위기 유형 분류 체계는 특정한 조직의 위기 유형의 유목을 도출해낼 때에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새로운 위기 유형의 유목을 분류하는 데에 사용된다. 그리고 일부 위기 유형들 중 종교조직의 위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제외하였다(방신웅, 2012). 구체적으로 ‘제품손상’, ‘제품결함’ 등과 같은 제품관련 위기들을 유목에서 제외하고 ‘작업장 폭력’의 항목도 제외하였다. 이들의 유형을 제외한 이유는 제품관련 위기들은 제품의 생산이 기업의 주요한 활동이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위기가 될 수 있으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종교 조직의 위기 유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작업장 폭력’ 역시 종교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무력행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작업장 내에서의 폭력과는 구분되므로 종교 조직의 위기 유형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비행과 관련한 위기 유형은 위반 유형 유목으로 통합하여 단순화하였다(방신웅, 2012).

표 1. 종교조직의 위기 유형 유목(안)

유목	조작적 정의	예시
소문 (Rumor)	종교 조직에 관계된 구성원이나 조직을 대상으로 한 허위정보가 유포되는 경우	비리에 대한 의혹 등
자연재해 (Natural disaster)	자연현상으로 인해 종교 조직을 유지하는 데에 위협이 되는 경우	종교 행위 중단, 시설물 파손 등
악의 (Malevolence)	종교 조직에 관계된 구성원이나 조직에 해를 입힐 목적으로 행한 의도적인 행위	테러리즘, 악의적 비하 등
도전 (Challenge)	종교 조직의 지속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외부로부터 발생한 사건	신자 수 감소, 항의, 환경훼손 등
사고 (Accidents)	종교 조직 내부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구성원 내부갈등, 시설사고 등
위반 (Transgression)	조직 및 개인이 법률, 규제, 사회 규범 등을 의도적인 목적에서 행한 위반 행위	성직자의 비윤리적 행동, 뇌물수수, 폭력 등
기타	위의 유목들 중에 포함되지 않는 종교조직만의 특별한 유형	

그리고 해당 연구기간에서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팬데믹 상황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는 위기 유형 중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위기 유형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종교조직의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들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로 분류하여 코딩의 과정을 거쳤으며, ‘자연재해’인 코로나19로 인해 각 종교단체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자연재해’가 아닌, ‘위반’, ‘사고’ 등의 유목으로 분류하여 코딩하였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거리두기의 규정에 따라 종교 행위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에 반발하여 종교조직이 집단시위를 하거나, 지속적인 종교 행위를 거행한 경우에는 ‘위반’으로 분류하여 코딩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종교조직의 위기 유형 유목(안)을 <표 1>과 같이 도출하였다. ‘기타’의 유목은 종교조직의 위기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슈들의 코딩 과정을 통해, 기존의 PR 분야에서의 위기 유형에 속하지 않은 종교조직만의 특성이 반영된 위기의 유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분석 유목으로 분류해 두었다.

(3) 종교조직의 위기 대응 전략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2> ‘종교조직은 위기 발생 시 어떠한 위기 대응 전략을 사용하였는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위기 대응 전략의 유목을 콤즈(Coombs, 1999)의 위기의 책임 수준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하되, 그중 ‘환심 사기(Ingratiation)’의 항목을 제외하고 사용할 것이다. 환심 사기 전략은 조직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칭찬하고 조직이, 과거에 그들에게 잘해 왔던 일들을 상기시킴으로써 위기 상황에서도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창출해 내려는 전략이다. 이는 높은 기업 평판을 가진 조직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CSV(공유가치창출)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같은 활동들로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여 기업의 활동에 우호적인 공중들에게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결과가 있다. 하지만 종교조직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 아닐뿐더러 기업에 비해 관련된 공중이 기대하는 윤리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책임을 회피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이현우 · 손승우 · 김소윤, 2010), ‘환심사기’의 전략을 제외한 나머지 위기 대응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이는 레그(Legg, 2008)가 말한 종교 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위기 의식과도 연관이 있다. 따라서 종교의 위기 대응 전략을 구분하기 위해 <표 2>과 같이 수정된 콤즈(Coombs, 1999)의 책임 수준에 따른 위기 대응 전략을 분석 유목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보았듯이 국내의 위기 대응 전략 연구들은 주로 수용적 전략들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들에 비해 국외의 연구들은 무조건적인 수용적 전략이 아니라 책임수준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냈기에(김소연 · 차희원, 2014; 박소연 · 성민

정, 2020) 연구의 대상인 개신교, 불교, 천주교 역시도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종교들이 아닌 전 세계적인 대표 종교이므로, 책임수준에 따른 구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종교의 책임수준과 관계없이 종교조직이 주로 사용했던 위기 대응 방식인 ‘침묵’과 같은 대응 전략 또한 위기 대응 전략의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항목을 추가하고 ‘침묵’이라는 유목과 기존 콤즈의 이론적 틀에 포함되지 않는 종교조직만의 위기 대응 전략을 위한 ‘기타’ 유목으로 세분화하였다. ‘침묵’의 경우, 분석 대상 기사에서 위기에 대한 종교조직의 무대응이 언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위기 대응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위기에 대한 ‘무대응’으로 간주하고 ‘침묵’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표 2. 수정된 콤즈(Coombs,1999)의 위기에 대한 책임수준에 따른 종교 위기 대응 전략

책임인식 수준	유목	조작적 정의
수용적 (위기에 대한 높은 책임수준)	사과	책임을 느끼고 공식적인 사과를 한 경우
	개선	위기에 대한 차후 대책으로 개선을 약속한 경우
	정당화	위기의 발생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음을 표명하는 경우
	변명	위기는 인정하나 위기 책임을 부인하거나 최소화하는 경우
	부인	위기 상황을 부인하며 위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방어적 (위기에 대한 낮은 책임수준)	공격	위기를 가져온 대상을 향한 적극적인 대응 및 책임의 소재를 전가하는 경우
	기타	위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
기타	침묵	위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
	기타	위의 유목들 중에 포함되지 않는 종교조직만의 특별한 유형

4. 연구결과

1) 종교조직의 위기 유형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은 ‘종교조직에 발생하는 위기의 유형별 분포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었다. 최근 5년 동안의 국내 종교조직의 위기 유형은 ‘위반’이 90건(35.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자연재해’가 60건(23.6%)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도전’이 36건(14.2%), ‘사고’가 33건(13.0%), ‘소문’이 16건(6.3%), ‘기타’ 10건(3.9%), ‘악의’ 9건(3.5%)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종교조직의 위기 유형에서 ‘위반(90건, 35.4%)’의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와 관계된 위반의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연재해(60건, 23.6%)’의 유형인데, 이는 2020년 2월 이후 급증한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종교조직에 관한 기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 생각된다. 특히,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개신교회들에 대한 이슈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곧 종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실제로 일부 개신교회는 전국민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본 연구의 이슈들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종교들은 종교 행위를 중단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특히 천주교의 경우에는 1차 유행이라고도 불리는 ‘신천지 교회발 감염증’이 발발한 대구지역에서 2020년 2월 19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내 2020년 2월 26일에는 한국천주교회의 모든 교구에서 미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천주교회 236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만큼 ‘자연재해’로 인한 종교의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는 다른 종교들 역시 종교조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종교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도전(36건, 14.2%)’의 위기 유형으로 분류된다. 도전의 주요 현상은 각 종교별 종교인 수의 감소인데 그 원인을 따져보자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거리두기’, ‘모임제한’ 등의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가 종교 자체에 대한 혐오로 이어져 신자 감소 및 종교조직 유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는 ‘사고(33건, 13.0%)’가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종교조직 내의 구성원들 간의 마찰이나 갈등이 심화되어 발생한 내부적인 사고들이 주를 이루었고, 일부 종교조직에서는 종교지도자들 간의 마찰로 인해, 불화나 갈등의 상태에 처하게 된 이슈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소문(16건, 6.3%)’은 종교조직에 관계된 구성원이나 조직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정보가 유포된 경우를 가리키는데, 일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로 인한 종교조직의 위기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원을 통해 종교조직에 소문을 퍼트리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독특하게 그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타(10건, 3.94%)’의 유형인데, 이는 종교조직만이 가지는 독특한 위기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기타’로 분류된 이슈들은 각각의 종교들의 교리와 관계된 이슈들이었다. 즉, 종교가 추구하는 교리와 가르치는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 움직이거나, 교리와 반하는 사회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종교조직에 있어 교리와 관계된 대표적인 이슈가 사형제도 폐지, 낙태법 폐지,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과 관계된 이슈들이었다. 이러한 이슈들은 각 종교들이 믿고 있는 교리와 진리를 수호하는 데에 사회와 마찰을 겪게 되고, 이러한 교리를 지키기 위해 종교는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종교조직의 위기 유형 중 ‘기타’ 항목을 ‘교리위협’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끝으로 ‘악의(9건, 3.54%)’의 위기 유형은 국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지지자를 포섭하기 위해 특정 종교를 향한 악의적인 비하나 발언 등을 공공연하게 포함으로써, 자신을 지지하는 다른 종교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국내의 모 정치인은 특정 종교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다가 해당 종교의 공격적인 대응에 사과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 종교가 정치에 무관심할 수는 없지만 정치는 그 행위 자체가 특정한 이익을 좇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보편 이익을 강조하는 종교적 지향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과 종교조직의 밀접한 관계는 타 종교를 향한 악의적인 비하나 테러리즘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정태식, 2011). ‘악의’의 위기 유형이 국내에서 많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종교와 정치라는 이데올로기 안에서 발생되고 있다 하겠다.

2) 종교조직별 위기 유형의 분포

종교조직별 위기 유형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종교조직에 따른 위기 유형 분포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 = 109.50$, $df = 18$, $p < 0.01$)(<표 3 참조). 먼저 불교를 살펴보면, 불교의 종교위기와 관련한 이슈는 총 61개였으며 이 가운데 ‘도전’이 20건(32.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자연재해’가 10건(16.4%), ‘소문’, ‘악의’, ‘위반’이 각각 8건(13.1%), ‘사고’ 7건(11.5%) 순으로 나타났다. ‘교리위협’에 관한 위기 유형은 불교에 있어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불교의 위기 유형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도전(20건, 32.8%)’이었는데,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사찰의 운영과 관계된 이슈들이 많았다. 우리나라 사찰은 지리적 조건에 의해 국립공원에 위치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에 따른 통행료와 관계된 이슈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불자들의 사찰 방문 감소로 운

영에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불교의 위기 유형은 ‘자연재해(10건, 16.4%)’인데, 이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회를 중단한 것이 가장 요인으로 해석되어 진다. 심지어 불교에서는 2020년 3월, 불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날이라 할 수 있는 ‘부처님오신 날’ 행사를 5월로 미루는 상황까지도 발생하였다. 그 다음으로 불교의 위기 유형들은 ‘소문(8건, 13.1%)’, ‘악의(8건, 13.1%)’, ‘위반(8건, 13.1%)’으로 나타났는데, ‘소문’의 경우는 불교에서 운영하는 ‘나눔의 집’ 운영에 관한 이슈로 해당 이슈와 같이 불교를 향한 의혹들이 주를 이루었다. ‘악의’의 경우에는 특정 정치인이 불교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한 이슈나 코로나19로 인해 개신교회에 대한 비난이 일자, 일부 개신교회 신자들이 사찰을 대상으로 한 방화나 불상 등을 훼손하는 사건 등이 발생했다. ‘위반’의 경우는 일부 스님들의 비윤리적 행동에 관한 이슈들이었다. ‘사고(7건, 11.5%)’의 경우, 앞선 ‘악의’에서의 화재가 사람에게 의한 인재(人災)였다면, 시설 노후에서 비롯된 사찰 화재로 인한 시설물의 소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불교의 경우에는 ‘교리위협’의 이슈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종교공통의 항목에서 다루겠지만, 불교는 ‘교리위협’의 위기에 있어서는 항상 타 종교와 함께 연대하여 위기의식에 대한 고찰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기사들 중에는 불교 단독의 ‘교리위협’ 이슈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종교조직별 위기 유형의 발생 비교

종교구분 \ 위기 유형	불교 n(%)	천주교 n(%)	개신교 n(%)	종교공통 n(%)	합계 n(%)
소문	8(13.1)	3(7.5)	3(2.1)	2(16.7)	16(6.3)
자연재해	10(16.4)	19(47.5)	28(19.9)	3(25.0)	60(23.6)
악의	8(13.1)	1(2.5)	0(0.0)	0(0.0)	9(3.5)
도전	20(32.8)	1(2.5)	12(8.5)	3(25.0)	36(14.2)
사고	7(11.5)	2(5.0%)	24(17.0)	0(0.0)	33(13.0)
위반	8(13.1)	11(27.5)	70(49.6)	1(8.3)	90(35.4)
교리위협	0(0.0)	3(7.5)	4(2.8)	3(25.0)	10(3.9)
총계	61(24.0)	40(15.7)	141(55.5)	12(4.7)	254(100.0)

천주교에서 발생한 40건의 위기 이슈를 살펴보면, ‘자연재해’가 19건(47.5%)으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위반’이 11건(27.5%), ‘소문’과 ‘교리위협’이 각각 3건(7.5%), ‘사고’ 2건(5%), ‘악의’ 1건(2.5%), ‘도전’ 1건(2.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의 천주교의 위기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자연재해(19건, 47.5%)’인데, 이는 앞서 언급하였던 한국천주교회 236년 역사상 처음으로 맞이한 미사 중단의 이슈가 주를 이루었다. 한국천주교회는 2020년 2월 19일 코로나19 1차 대유행 발발지인 대구대교구에서 먼저 미사를 중단한 이후, 동년 2월 26일 전국 16개 교구의 미사 중단으로 이어졌다. 이는 세계천주교회에서도 이슈가 될 정도로 천주교의 큰 위기였으며, 그 이후로도 수차례의 미사 재개와 미사 중단이 반복되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위기 유형은 ‘위반(11건, 27.5%)’이다. 사실상 코로나19의 위기가 아니었다면, 천주교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성직자들의 비윤리적 행동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반 신자들의 위반 행위에 비해 성직자의 위반 행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엄격한 독신생활과 상대적으로 높은 윤리수준을 기대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태도에 반하는 천주교 성직자들의 일탈과 비윤리적 행동들은 타 종교의 성직자들에 비해 더 많은 비난과 함께 천주교의 큰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이철, 2012). 이어서 또 다른 위기 유형은 ‘소문(3건, 7.5%)’과 ‘교리위협(3건, 7.5%)’이다. ‘소문’의 경우에는 천주교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단체 비리에 관한 이슈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많은 소문과 의혹이 있었던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은 그동안 한국천주교회가 가진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였다. 이어서 ‘교리위협’이 천주교의 위기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낙태법 폐지 이슈와 관계된 생명운동과 더불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이슈,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슈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사고(2건, 5.0%)’ 유형인데, 천주교 내에서 논란 중인 ‘나주 올리아’ 이슈 등과 같은 종교 내부의 갈등에 관한 이슈들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악의(1건, 2.5%)’, ‘도전(1건, 2.5%)’과 같은 위기 유형들도 발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각 1건으로서 천주교의 주요 위기 유형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개신교의 경우, 141개의 위기 이슈를 분석했는데, 위기 유형별 그 빈도를 살펴보면, ‘위반’이 70건(4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연재해’가 28건(19.9%)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어 ‘사고’ 24건(17.0%), ‘도전’ 12건(8.5%), ‘교리위협’ 4건(2.8%), ‘소문’ 3건(2.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위기 유형인 ‘위반(70건, 49.6%)’의 경우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해당 종교의 목회자들의 위반 이슈가 신도들의 이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 이슈에 있어 일부 목회자들의 단독 행동과 위반 사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밖에도 목회자의 비윤리적 행동과 뇌물수수 등과 같은 이슈들이 주를 이루었다. 다음으로 높은 빈도의 위기 유형은 ‘자연재해(28건, 19.9%)’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운영의 중단과 관계된 이슈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

했기 때문에 분석된다. 목회자들의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이슈들이 ‘위반’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관계된 개신교회의 ‘자연재해’ 위기는 일부 개신교회들의 생존에까지 위협을 미칠 정도로 큰 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위기 유형은 ‘사고(24건, 17.0%)’인데, 개신교는 불교, 천주교와 달리 중앙집권식이 아닌 개별 교회로 나뉜 종파들의 연합으로 이해될 수 있어, 개별 교회들 간의 마찰과 갈등 이슈, 목회자와 신도들 간의 갈등 등의 이슈들이 타 종교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코로나19는 이러한 개신교회 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는 다른 위기 유형에 비해 낮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교리위협(4건, 2.8%)’과 ‘소문(3건, 2.1%)’이다. ‘교리위협’은 성소수자 단체와 마찰, 낙태법 폐지와 관계된 이슈 등 개신교의 교리에 반하는 사회적 상황들과 마찰을 일으킨 이슈들이 주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기간 동안에는 ‘악의’로 분류될 수 있는 위기 이슈는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불교, 천주교, 개신교 모두를 포함한 전체 종교를 아우르는 위기 이슈 또한 발견되었다. 총 12건의 이슈들 중 ‘자연재해’, ‘도전’, ‘교리위협’이 각각 3건(25.0%), ‘소문’ 2건(16.7%), ‘위반’ 1건(8.3%) 순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3건, 25.0%)’는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종교 전체의 위기로서 종교 행위의 중단과 방역지침 미준수 등의 이슈가 주를 이루었다. ‘도전(3건, 25.0%)’은 종교조직을 향한 정부의 결정이 종교조직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상황들에 관한 이슈였으며 ‘교리위협(3건, 25.0%)’은 코로나19가 특정 종교만의 위기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 있어 새로운 위기로 작용함에 따라 각각의 종교가 다함께 위기 상황을 타파하려는 움직임에 관한 이슈들로 분석되었다. ‘소문(2건, 16.7%)’과 ‘위반(1건, 8.3%)’의 경우는 종교들이 처한 각각의 위기 유형에 대해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슈로서 한국사회를 흔들었던 미투 운동 등의 이슈들이 이에 해당한다.

〈연구문제 1b〉는 종교별로 자주 발생하는 위기 유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었다. 종교 위기 유형에 따라 각 종교별로 가장 큰 위기 유형만 정리하면 불교는 ‘도전(32.8%)’, 천주교는 ‘자연재해(47.5%)’, 개신교는 ‘위반(49.6%)’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종교 위기 유형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위반(35.4%)’으로서 가장 큰 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와 비교했을 때 개신교(49.6%)와 천주교(27.5%)도 ‘위반’이 해당 종교의 위기들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불교(13.1%) 역시도 다른 위기에 비해 비중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자연재해’의 위기가 부각이 되지 않는 시기였다고 본다면 그 비중이 결코 낮은 편이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작용하긴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종교의 위기에 있어 ‘자연재해’는 시대를 막론하고 큰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종교 역시도 전 세계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종교조직의 위기 대응 전략

〈연구문제 2〉는 종교조직이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위기 대응 전략을 사용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위기 대응 전략의 유목은 콤즈(Coombs, 2000)의 위기 대응 전략 유형을 바탕으로 유목화한 것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위기 대응 전략의 유목들은 ‘사과(Apology)’, ‘개선(Corrective Action)’, ‘정당화(Justification)’, ‘변명(Excuse)’, ‘부인(Denial)’, ‘공격(Attack)’, ‘침묵(Silence)’의 일곱 가지 유형에 종교조직에서만 나타나는 새로운 유목을 찾기 위해 ‘기타’의 유목을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 종교조직의 위기 대응 전략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침묵’으로 127건(50.0%)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공격’ 69건(27.2%), ‘사과’ 16건(6.3%), ‘변명’ 7건(2.8%), ‘정당화’ 6건(2.4%), ‘부인’ 1건(0.4%), ‘개선’ 1건(0.4%) 순으로 나타났다. 위기 대응 전략의 분석 유목 중 ‘기타’ 항목이 27건(10.6%)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선 종교조직의 위기 유형 중 ‘교리위협’과 마찬가지로 종교조직만의 새로운 위기 대응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종교의 위기 유형과 마찬가지로 위기 대응의 ‘기타’ 항목은 종교조직이 조직 내부의 부족함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제언을 하는 회의 및 모임들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대상 기간동안의 한국종교조직들은 어떠한 위기상황에 대처하여 자신들의 내부 상황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종교조직의 모임 및 행동은 비단 신자 수의 감소나 종교 내부 갈등의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종교조직 및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 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종교조직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위기상황들을 분석하고 성찰하는 위기 대응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종교는 인간과 사회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종교는 현 상황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성찰로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를 이어나가되 종교만이 전할 수 있는 진리를 현 시대에 맞게 전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지니고 있다. 곧 ‘언제나 쇄신되어야 할 교회(Ecclesia semper reformanda)’의 실행이 그것이다. 이는 고대 교회로부터 전해

내려온 라틴어 격언으로 가톨릭교회든 개신교회든 쇄신을 바라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다. 또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 자신의 모토로 삼으면서 더욱 유명해진 표현이기도 하며(김홍락, 2012), 종교조직만이 가지는 또 다른 위기 대응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서명옥, 2019). 뿐만 아니라 종교별로 이러한 성찰과 쇄신을 위한 모임이나 회의들을 통해 공동의 성명을 공식화하는 것이 자주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종교조직이 사회와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타’의 항목을 종교조직만의 전혀 다른 위기 대응방식인 ‘성찰 및 쇄신’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성찰과 쇄신’은 ‘사과’와 ‘개선’과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 ‘사과’와 ‘개선’이 피해를 입은 대상을 향한 것이라면, ‘성찰과 쇄신’은 문제의 주체자 스스로가 외부의 개입 없이 반성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종교조직만이 가지는 새로운 위기 대응 유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54개의 종교위기 이슈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한국 종교조직의 위기 대응 전략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침묵(127건, 50.0%)’ 전략이었다. 이는 해당 이슈에 대해서 종교조직의 언급이나 해명 없이 위기를 수용하려는 종교조직의 특성을 드러낸다. 동시에 종교조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불필요한 논쟁만 발생시키기에 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한국 종교조직의 고착화된 태도가 위기 대응의 주된 수단으로 침묵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장석만, 2000).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위기 대응 전략은 ‘공격(69건, 27.2%)’이다. ‘공격’은 해당 이슈에 대해 종교조직이나 개인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며 정당한 조치를 하였음을 드러내는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이슈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종교의 정당성과 무결함을 드러내기 위해 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위기 대응 전략은 ‘성찰 및 쇄신(27건, 10.6%)’이다. 이 전략은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것으로 종교조직의 위기 대응 전략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조직은 개인이나 기업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종교조직의 부족함과 잘못들을 반성함으로써 똑같은 위기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전략이기도 하다. 물론, 모든 위기의 상황에서 ‘성찰 및 쇄신’의 위기 대응 전략이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종교의 자발적인 성찰과 쇄신의 움직임은 조직 내의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조직만이 가질 수 있는 위기 대응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종교조직이 사용한 위기 대응 전략은 ‘사과(16건, 6.3%)’이다. ‘사과’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대상에 대해 종교조직이 사과를 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는 태도이다. 종교조직의 ‘사과’는 개인과 기업의 ‘사과’와는 달리 이슈

의 원인여부와 관계없이 종교의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선부른 사과는 오히려 기존의 종교조직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다소 낮은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서 ‘변명(7건, 2.8%)’, ‘정당화(6건, 2.4%)’, ‘부인(1건, 0.4%)’, ‘개선(1건, 0.4%)’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선’을 제외한 나머지 ‘변명’, ‘정당화’, ‘부인’은 종교조직이 해당 이슈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위기 대응 전략으로 이로 인한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종교조직에 대한 불신과 오해들에 대한 위기 대응 전략들로 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김효숙, 2010; 홍승진, 2020).

4) 종교조직별 위기 대응 전략 분포

〈연구문제 2a〉가 한국의 종교조직의 위기 대응 전략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면, 〈연구문제 2b〉는 종교별 위기 대응 전략 빈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종교조직별 위기 대응 전략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각 종교조직에 따른 위기 대응 전략의 빈도 분포가 상이함을 보여준다($\chi^2 = 86.72$, $df = 21$, $p < 0.01$). 종교별 위기 대응 전략 분포는 〈표 4〉와 같다.

표 4. 종교조직별 위기 대응 전략의 비교

종교구분 \ 위기대응전략	불교 n(%)	천주교 n(%)	개신교 n(%)	종교공동 n(%)	합계 n(%)
사과	5(8.2)	5(12.5)	6(4.3)	0(0.0)	16(6.3)
개선	0(0.0)	0(0.0)	1(0.7)	0(0.0)	1(0.4)
정당화	2(3.3)	1(2.5)	2(1.4)	1(8.3)	6(2.4)
변명	1(1.6)	1(2.5)	5(3.5)	0(0.0)	7(2.8)
부인	0(0.0)	0(0.0)	1(0.7)	0(0.0)	1(0.4)
공격	30(49.2)	3(7.5)	35(24.8)	1(8.3)	69(27.2)
침묵	20(32.8)	16(40.0)	87(61.7)	4(33.3)	127(50.0)
성찰 및 쇄신	3(4.9)	14(35.0)	4(2.8)	6(50.0)	27(10.6)
총계	61(24.0)	40(15.7)	141(55.5)	12(4.7)	254(100.0)

먼저 불교의 위기 대응 전략을 살펴보면 총 61개의 이슈 중 ‘공격’이 30건(49.2%)으로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침묵’ 20건(32.8%), ‘사과’ 5건(8.2%), ‘성찰 및 쇄신’ 3건(4.9%), ‘정당화’ 2건(3.3%), ‘변명’ 1건(1.6%)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과 ‘부인’의 전략은 나타나지 않았다. 불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위기 대응 전략은 ‘공격(30건, 49.2%)’인데, 이는 불교와

관계된 위기의 이슈가 ‘도전(20, 32.8%)’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불교는 지속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위기 이슈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예가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사찰들에 대한 통행료 부과’에 관한 이슈들이 그것이다. 불교는 이러한 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많았다. 그밖에도 일부 정치인들의 불교에 대한 발언들에도 공식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종교 이미지 훼손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한 불교의 위기 대응 전략은 ‘침묵(20건, 32.8%)’이다. 이는 주로 ‘위반(8건, 13.1%)’, ‘악의(8건, 13.1%)’, ‘사고(7건, 11.5%)’ 등에 해당하는 위기에 대응하여 사용된 전략으로서, 구체적인 피해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교에서 운영하는 단체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하에 대한 불교의 위기 대응 전략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찰 및 쇄신(3건, 4.9%)’ 전략인데, 불교 역시도 코로나19로 인한 불자들의 사찰 방문수가 줄어들면서, 비대면 법회 등의 방법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불교계 내의 종파에 따른 차별과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도 ‘성찰 및 쇄신’의 위기 대응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불교의 위기 대응 전략에서 다소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정당화(2건, 3.3%)’, ‘변명(1건, 1.6%)’인데, 이 역시도 불교를 향한 ‘소문(8건, 13.1%)’에 대응한 위기전략으로 분석된다. 독특하게도 불교의 위기 대응 전략에서는 ‘개선’과 ‘부인’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위기 이슈들 중 위기의 책임소재가 불교에 있음을 주장하는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상에서처럼 불교의 가장 특징적인 위기 대응 전략은 ‘공격’으로서, 위기 상황에 맞서 적극적인 대응과 항변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표 5>는 불교의 위기 유형별 위기 대응 전략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5. 불교의 위기 유형별 위기 대응 전략

위기대응 위기유형	사과 n(%)	개선 n(%)	정당화 n(%)	변명 n(%)	부인 n(%)	공격 n(%)	침묵 n(%)	성찰 쇄신 n(%)	계 n(%)
소문	1(12.5)	0(0.0)	0(0.0)	1(12.5)	0(0.0)	4(50.0)	2(25.0)	0(0.0)	8(13.1)
자연재해	1(10.0)	0(0.0)	1(10.0)	0(0.0)	0(0.0)	0(0.0)	5(50.0)	3(30.0)	10(16.4)
악의	0(0.0)	0(0.0)	0(0.0)	0(0.0)	0(0.0)	6(75.0)	2(25.0)	0(0.0)	8(13.1)
도전	0(0.0)	0(0.0)	0(0.0)	0(0.0)	0(0.0)	17(85.0)	3(15.0)	0(0.0)	20(32.8)
사고	1(14.3)	0(0.0)	1(14.3)	0(0.0)	0(0.0)	2(28.6)	3(42.9)	0(0.0)	7(11.5)
위반	2(25.0)	0(0.0)	0(0.0)	0(0.0)	0(0.0)	1(12.5)	5(62.5)	0(0.0)	8(13.1)
교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계	5(8.2)	0(0.0)	2(3.3)	1(1.6)	0(0.0)	30(49.2)	20(32.8)	3(4.9)	61(100.0)

천주교의 위기 대응 전략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은 ‘침묵’으로서 16건(40.0%)으로 나타났고, ‘성찰 및 쇄신’ 14건(35.0%), ‘사과’ 5건(12.5%), ‘공격’ 3건(7.5%), ‘정당화’와 ‘변명’ 각각 1건(2.50%) 순으로 나타났다. 천주교의 위기 대응 전략은 불교와 마찬가지로 ‘개선’과 ‘부인’에 대해서는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천주교의 위기 대응 전략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침묵(16건, 40.0%)’이다. ‘침묵’은 천주교회 역사상 가장 오래된 위기 대응 전략 중 하나로 분석되는데, 천주교회가 시작된 이래 천주교는 이단 및 교리의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위기 대응을 보인 반면, 그 외의 경우에는 ‘침묵’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단순히 책임회피를 위해서라기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더 큰 논란을 막기 위함이며, 더불어 중세시대에 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지위에 있던 로마가톨릭의 침묵의 대응법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정원래, 2020).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위기 대응 전략은 ‘성찰 및 쇄신(14건, 35.0%)’이다. 천주교는 오랜 역사동안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움직임들을 꾸준히 보여 왔다. 게다가 천주교는 한국이라는 지역교회의 특수성도 가지는 동시에 세계 천주교회와 함께 보편성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세계교회의 시노드 및 지역교회의 시노드는 그동안 천주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찰함으로써 새로운 쇄신의 기회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 기간이었던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교회의 쇄신 운동들도 있었지만, 세계 교회의 시노드의 지침을 지역교회에 적용하는 움직임도 있었기에 이러한 이슈가 위기 대응 전략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한국천주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미사를 중단하였고, 이는 곧 세계 천주교회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비대면 방송 미사를 활성화하여, 신자들의 미사 참례수를 높였으며 이례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면 미사 안에서만 인정되어왔던 축복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하기도 하였다. 세계 교회에 관한 위기 이슈는 본 연구의 대상은 아니었으나, 로마가톨릭교회의 보편성으로 인한 ‘성찰 및 쇄신’의 위기 대응 전략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천주교에서 나타난 위기 대응 전략은 ‘사과(5건, 12.5%)’인데 이는 위기 유형 중 ‘위반(11건, 27.5%)’에 관계되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위반’ 유형 중 성직자의 위반 행위 경우, 천주교는 ‘사과’ 전략을 통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공격(3건, 7.5%)’ 전략은 ‘소문(3건, 7.5%)’과 ‘악의(1건, 2.5%)’에 관련된 위기 대응 전략으로 적극적인 항변과 성명문을 통해 악의적인 소문과 비하에 대해 대응한 것으로 이해된다.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낮은 위기 대응 전략으로 ‘정당화’와 ‘변명’이 각각 1건(2.5%)으로 나타

났는데, 이 역시 ‘소문’과 관계된 위기에 대응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천주교에서도 불교와 마찬가지로 ‘개선’과 ‘부인’의 위기 대응 전략은 나타나지 않았다. 천주교의 위기 유형별 위기 대응 전략의 빈도는 <표 6>과 같다.

표 6. 천주교의 위기 유형별 위기 대응 전략

위기대응 위기유형	사과 n(%)	개선 n(%)	정당화 n(%)	변명 n(%)	부인 n(%)	공격 n(%)	침묵 n(%)	성찰 쇄신 n(%)	계 n(%)
소문	0(0.0)	0(0.0)	0(0.0)	1(33.3)	0(0.0)	1(33.3)	1(33.3)	0(0.0)	3(7.5)
자연재해	0(0.0)	0(0.0)	0(0.0)	0(0.0)	0(0.0)	0(0.0)	8(42.1)	11(57.9)	19(47.5)
약의	0(0.0)	0(0.0)	0(0.0)	0(0.0)	0(0.0)	1(100.0)	0(0.0)	0(0.0)	1(2.5)
도전	0(0.0)	0(0.0)	0(0.0)	0(0.0)	0(0.0)	1(100.0)	0(0.0)	0(0.0)	1(2.5)
사고	0(0.0)	0(0.0)	0(0.0)	0(0.0)	0(0.0)	0(0.0)	1(50.0)	1(50.0)	2(5.0)
위반	5(45.5)	0(0.0)	0(0.0)	0(0.0)	0(0.0)	0(0.0)	6(54.5)	0(0.0)	11(27.5)
교리	0(0.0)	0(0.0)	1(33.3)	0(0.0)	0(0.0)	0(0.0)	0(0.0)	2(66.7)	3(7.5)
계	5(12.5)	0(0.0)	1(2.5)	1(2.5)	0(0.0)	3(7.5)	16(40.0)	14(35.0)	40(100.0)

개신교는 141개의 이슈 가운데, ‘침묵’ 전략이 87건(61.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격’ 전략이 35건(24.8%)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사과’ 6건(4.3%), ‘변명’ 5건(3.5%), ‘성찰 및 쇄신’ 4건(2.8%), ‘정당화’ 2건(1.4%), ‘개선’과 ‘부인’이 각각 1건(0.7%) 순으로 나타났다. 개신교의 위기 대응 전략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은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침묵(87건, 61.7%)’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신교의 위기 유형 중 ‘위반(70건, 49.6%)’과 관계된 것들이 많았다. 목회자들의 위반과 관계된 위기에 있어서 개신교는 ‘침묵’의 위기 대응 전략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코로나19와 관계된 방역지침 미준수에 대한 ‘자연재해(28건, 19.9%)’의 위기에 대해서도 ‘침묵’의 위기 대응 전략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빈도수가 높은 개신교의 위기 대응 전략은 ‘공격(35건, 24.8%)’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부 목회자들이 원인인 경우가 다수였다. ‘위반(70건, 49.6%)’과 ‘사고(24건, 17.0%)’의 위기 유형에 대응하여 주로 나타난 ‘공격’ 전략의 경우, 개신교회에는 책임이 없으며 집회나 예배는 오히려 정당한 행위였음을 주장하는 대응이 주를 이루었다. 다음으로 ‘사과(6건, 4.3%)’는 코로나19로 인해 집단감염의 원인이 되었던 일부 개신교회들의 이슈에 대한 위기 대응 전략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 기간 중, 상당수의 개신교회는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부각이 되었고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

스의 감염원으로도 주목을 받게 되어 국민적인 사과를 하게 된 경우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변명(5건, 3.5%)’은 개신교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위기 대응 전략이라고 볼 수 있으나, 불교와 천주교에 비해서는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변명’은 개신교의 위기 유형 중 ‘도전(12건, 8.5%)’에 대응하여 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예배가 중단된 상황들이 지속됨에도 무리하게 예배를 강행함으로써 일부 교회 관계자들이 구속 및 벌금형에까지 이르게 된 이슈들에서 많이 나타난 위기 대응 전략이다.

표 7. 개신교의 위기 유형별 위기 대응 전략

위기대응 위기유형	사과 n(%)	개선 n(%)	정당화 n(%)	변명 n(%)	부인 n(%)	공격 n(%)	침묵 n(%)	성찰 쇄신 n(%)	계 n(%)
소문	0(0.0)	0(0.0)	0(0.0)	0(0.0)	0(0.0)	2(66.7)	1(33.3)	0(0.0)	3(2.1)
자연재해	3(10.7)	0(0.0)	0(0.0)	0(0.0)	0(0.0)	6(21.4)	19(67.9)	0(0.0)	28(19.9)
악의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도전	0(0.0)	0(0.0)	1(8.3)	1(8.3)	0(0.0)	7(58.3)	3(25.0)	0(0.0)	12(8.5)
사고	1(4.2)	0(0.0)	1(4.2)	4(16.7)	0(0.0)	6(25.0)	11(45.8)	1(4.2)	24(17.0)
위반	2(2.9)	1(1.4)	0(0.0)	0(0.0)	1(1.4)	14(20.0)	52(74.3)	0(0.0)	70(49.6)
교리	0(0.0)	0(0.0)	0(0.0)	0(0.0)	0(0.0)	0(0.0)	1(25.0)	3(75.0)	4(2.8)
계	6(4.3)	1(0.7)	2(1.4)	5(3.5)	1(0.7)	35(24.8)	87(61.7)	4(2.8)	141 (100.0)

다음으로는 ‘성찰 및 쇄신(4건, 2.8%)’이다. 이 위기 대응 전략은 개신교 내부에서 위기 의식을 가지고 행해지는 모임이나 회의, 운동과 관계된 이슈와 관계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추된 개신교의 신뢰도 회복을 위한 개신교회 연합체 차원에서의 성명 발표와 특정 목회자의 지나친 정치 참여와 방역 지침 미준수 등에 대한 건을 논의하기 위해 생겨난 이슈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일부 교회와 목회자의 발언과 행동이 실제로는 개신교 전체의 위기로도 작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당화(2건, 1.4%)’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수의 위기 대응 전략으로 나타났는데, 개신교에 대한 악의적인 비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대면 예배를 추진한 이슈에서 발견되었다. ‘부인’(1건, 0.7%)과 ‘개선(1건, 0.7%)’은 다른 위기 대응 전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이긴 하나, 개신교에서만 나타난 위기 대응 전략으로 ‘위반’의 위기 유형에서 사용되었다(〈표 7〉 참조).

모든 종교에 공통적 관계된 위기에 있어서의 대응들도 내용분석을 통해 나타났는데, ‘성찰 및 쇄신’이 6건(50%), ‘침묵’이 4건(33.3%), ‘정당화’와 ‘공격’이 각각 1건(8.3%)이었다. 특히 모든 종교와 관계된 위기의 상황에서 ‘성찰 및 쇄신’ 전략이 높은 빈도수를 나타낸 것은, 종교조직들이 연합하여 국가정책이나 사회 운동에 대응하여 목소리를 내거나 성명을 발표한 경우들을 가리킨다. ‘침묵’ 전략과 같은 경우 ‘미투 이슈’를 비롯해, 종교지도자들이 관련된 위기에서 나타났다. ‘정당화’와 ‘공격’은 각각의 종교가 추구하는 교리에 위반되는 국가 정책 결정에 대한 시위와 연대 회의에 관계된 것으로, 세 종교조직이 함께 종교조직의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5. 결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신문기사들을 개별 신문기사가 아닌, 위기 이슈별로 분류하여 위기 이슈를 하나의 분석 단위로 보고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종교조직을 위협하는 위기 유형 및 위기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이 유목들에 대한 종교별 빈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종교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위기상황들이 어떠한 위기 유형으로 분류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콤즈(Coombs, 2000)의 위기 유형 유목을 기준으로 종교조직에 부합하는 새로운 위기 유형을 도출하였다. 연구를 통해 유목화한 종교조직의 위기 유형은 ‘소문’, ‘자연재해’, ‘악의’, ‘도전’, ‘사고’, ‘위반’, ‘교리 위협’의 일곱 가지 유형이다. 특히 ‘교리 위협’의 유목은 종교조직만이 가지는 특수한 위기 유형으로서 본 연구의 내용분석을 통해 명명하게 된 유목이다. 내용분석을 통해 나타난 이 유형에 속하는 위기 이슈들은 각각의 종교들의 교리 수호와 관계된 이슈들이었다. 즉, 종교가 추구하는 교리와 가르치는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 행동하거나, 교리와 반하는 사회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를 가리킨다. 사실 종교에 있어 정통 교리를 수호하는 일은 잘못된 신념과 이단적 내용이 교회 안에 유입되어 신앙인들을 혼란하게 하는 것을 막아주며, 종교조직의 원천을 지켜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다. 실제로 당대 사람들의 기준에 비추어 교리를 더 이해하기 쉽고 설

득력 있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일은 신앙의 길을 깊고 넓게 한다. 하지만 각 종교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러한 교리와 진리를 수호하는 데에 사회와 마찰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고, 이처럼 교리를 지키기 위해 종교는 다른 조직과는 달리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정희완, 2021). 따라서 ‘교리 위협’의 위기 유형은 종교조직의 위기를 분류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유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종교조직만의 위기 유형 분류를 통해서 국내 종교조직의 위기 유형별 분포를 살펴 보았다. 종교조직의 위기 유형의 분류 결과, 종교조직의 위기는 254건의 이슈 중 위반 90건(35.4%), 자연재해 60건(23.6%), 도전 36건(14.2%), 사고 33건(13.0%), 소문 16건(6.3%), 교리 위협 10건(3.9%), 악의 9건(3.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주목할 점은 종교조직은 종교조직 및 개인이 법률, 규제, 사회 규범 등을 위반한 위기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중에서도 종교지도자들 개인의 위반행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전체 종교가 아닌 종교조직별 위기의 유형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불교의 경우, 61건의 위기 이슈들은 도전 20건(32.8%), 자연재해 10건(16.4%), 소문 8건(13.1%), 악의 8건(13.1%), 위반 8건(13.1%), 사고 7건(11.5%)의 순으로 위기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었다. 불교에서 도전의 위기 유형이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사찰의 운영에 위협되는 이슈들이 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천주교의 위기 유형들은 총 40건의 이슈를 통해서 분류되었는데, 높은 비율 순으로 나열하면 자연재해 19건(47.5%), 위반 11건(27.5%), 소문 3건(7.5%), 교리 위협 3건(7.50%), 사고 2건(5.0%), 악의 1건(2.5%), 도전 1건(2.5%) 순이다. 천주교의 경우 자연재해가 위기의 유형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미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신교의 위기 이슈는 141건으로 이를 통해 살펴본 위기 유형의 비율은 위반 70건(49.6%), 자연재해 28건(19.9%), 사고 24건(17.0%), 도전 12건(8.5%), 교리 위협 4건(2.8%), 소문 3건(2.1%) 순으로 나타났다. 개신교의 경우는 위반의 위기 유형이 많았는데, 이는 목회자들의 비윤리적인 행동들도 포함되었지만, 그보다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서 생겨난 종교 위기 이슈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종교조직의 위기 대응 전략을 분류하기 위해 콤즈(Coombs, 1999)의 위기 대응 전략을 사용하여 ‘사과’, ‘개선’, ‘정당화’, ‘변명’, ‘부인’, ‘공격’, ‘침묵’, ‘기타’로 유목화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기타’항목으로 분류된 내용분석을 통해 ‘성찰 및 쇄신’으로 유목을 명명하였다. 이 유목은 내용분석을 통해 드러난 종교조직만의 위기 대응 전략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대응 내용들은 종교조직이 조직 내부의 부족함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제언을 공식화하고 공표하는 자성적(自省的) 행사들이었다. 종교 조직은 이러한 성찰과 쇄신을 위한 행사들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삶에 적용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종교는 단순히 현 상황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성찰과 쇄신을 통해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를 이어나가되 종교만이 전할 수 있는 진리를 현 시대에 맞게 전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지니고 있다. ‘언제나 쇄신되어야 할 교회’(Ecclesia semper reformanda)의 실행은 종교조직이 취할 수 있는 고유한 위기 대응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서명옥, 2019). 실제로 연구대상 기간 중 종교조직은 이러한 성찰과 쇄신을 위한 자리를 가지고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종교의 본연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걸음 더 나아가려는 행동을 취했다. ‘성찰과 쇄신’은 ‘사과’와 ‘개선’과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 ‘사과’와 ‘개선’이 위기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체를 향한 행동이라면, ‘성찰과 쇄신’은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가 외부의 개입 없이 반성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종교조직은 이러한 ‘성찰과 쇄신’의 과정을 통해 위기를 직면하고 대응해 나간다. 이렇게 유목화된 종교조직의 위기 대응 전략을 통해 분석한 국내 종교조직의 위기 대응 전략은 침묵 127건(50.0%), 공격 69건(27.2%), 성찰 및 쇄신 27건(10.6%), 사과 16건(6.3%), 변명 7건(2.8%), 정당화 6건(2.4%), 부인 1건(0.4%), 개선 1건(0.4%)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조직의 위기 대응 전략에서 침묵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한국 사회에서의 종교의 위치와도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는 국교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윤리, 도덕적 기준으로 인식되어지며, 동시에 종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각자의 삶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깊이 개입할수록 말썽만 일으키기 때문에 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한국 사회에 고착화된 태도의 결과로 볼 수 있다(장석만, 2000).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 ‘공격’과 ‘성찰 및 쇄신’인데, 이 두 전략은 같은 목적을 추구하되 방식에 있어서 종교의 당위성과 존재 가치를 직접적으로 상대에게 드러내고 알리느냐(공격), 아니면 종교 내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여 종교의 당위성과 존재 가치를 확고히 하느냐(성찰 및 쇄신)로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각 종교별 위기 대응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교의 경우, 공격 30건(49.2%), 침묵 20건(32.8%), 사과 5건(8.2%), 성찰 및 쇄신 3건(4.9%), 정당화 2건(3.3%),

변명 1건(1.6%)의 순으로 위기 대응 전략의 빈도가 나타났다. 공격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이유 중 하나는 불교조직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천주교의 위기 대응 전략은 침묵 16건(40.0%), 성찰 및 쇄신 14건(35.0%), 사과 5건(12.5%), 공격 3건(7.5%), 정당화 1건(2.5%), 변명 1건(2.5%)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신교는 위기의 상황에서 침묵 87건(61.7%), 공격 35건(24.8%), 사과 6건(4.3%), 변명 5건(3.5%), 성찰 및 쇄신 4건(2.8%), 정당화 2건(1.4%), 부인 1건(0.7%), 개선 1건(0.7%)의 순으로 개신교 역시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침묵의 위기 대응 전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불교와 마찬가지로 위기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도 다수를 차지한다.

2) 연구의 시사점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첫째, 콤즈와 할러데이의 위기 유형의 이론적 틀과 콤즈가 제시한 위기 대응 전략의 분류 틀을 새로운 맥락인 종교조직에 적용해 봄으로써 기존 이론적 틀의 타당성을 검증해보고 이론적 확장을 꾀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전무한 종교조직을 대상으로 한 위기 관리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조직의 위기 관리 연구들에 있어서 위기 유형의 분류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김영욱, 2008), 본 연구는 종교조직의 특수성이 드러나는 위기 유형 및 위기 대응 전략들을 유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위기 유형 및 위기 대응 전략에 대한 기존 이론의 틀 위에 교리위협'이라 명명할 수 있는 위기 유형과 '성찰과 쇄신'으로 분류되는 위기 대응 전략을 추가함으로써 종교조직만의 위기 관리 연구의 이론적 틀을 마련했다. 둘째, 종교조직의 위기 유형에 대한 분류가 전무한 상황에서 다수의 선행연구는 종교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고,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위기 대응 전략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SCCT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종교조직의 위기 유형과 위기 대응 전략은 향후 종교조직의 위기에 대한 연구에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수집된 신문기사를 위기 이슈별로 묶어 실시한 내용분석은 이러한 종교조직의 위기 유형과 위기 대응 전략의 유목을 개발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인 동시에 각 유목의 심층적 연구를 위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국내 종교 전체의 위기 관리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개별 종교의 위기 유형과 위기 대응 전략

을 분석함으로써, 개별 종교의 심층적 위기 관리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시사점과 더불어 종교조직의 위기 관리를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실무자 양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기존의 종교조직은 위기 관리 혹은 위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분야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종교조직이 아닌 조직(영리 조직, 공공조직 등) 특성을 반영한 기존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종교조직의 위기 관리 연구에 바로 대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특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사용하는 위기 대응 전략은 종교조직의 위기와는 부합하지 않는 면들이 많았는데, 본 연구는 영리 조직의 맥락과는 다른 종교적 맥락에서 위기 유형 및 대응 전략을 유목화하고 분석함으로써, 종교조직의 위기 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5년간 각 종교조직의 위기 유형별 발생 빈도를 통해 개별 종교조직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진단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 유형별 대응 전략을 검토해 봄으로써 전략의 효용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종교조직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연구하려는 연구자들에게는 선행연구로서 기초를 제공하여, 심화된 종교조직의 위기 관리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 종교의 위기 관리자나 연구자들은 종교조직의 위기 유형에 대한 본 연구를 기반으로 개별 종교들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비교종교학의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이상의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2016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각각의 신문기사들을 이슈별로 묶어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사가 위기와 관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사고’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아서 의도치 않게 누락된 기사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사들을 이슈별로 묶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일부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둘째, 각 종교별 위기 관리를 비교하기에는 수집된 종교별 표본의 수가 상이하다. 위기는 것이 모든 종교에 있어서 골고루 분포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대상의 기간으로 삼았던 2016년에서부터 2021년 사이에 발생한 종교별 위기 이슈의 표본 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표본 대상 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해 특정 종교에 대한 위

기 이슈가 부각되면서, 종교 간 위기 이슈의 표본수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종교조직별 상이한 표본수는 한국 종교조직 전체의 위기 유형과 위기 대응 전략 분석에 있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용분석을 위해 선정한 신문사들의 선정 기준이 이러한 표본수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신문사들의 발매 부수와 연혁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중앙일간지 3개(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각 종교별 매체 3개(불교신문, 가톨릭신문, 기독교일보)를 분석 대상 매체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종교조직의 위기에 대한 더 정확한 내용분석을 위해서 선정된 중앙일간지의 경우에는 단순히 발매 부수와 연혁 보다는 신문사의 논조나 해당 매체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면, 좀 더 다양한 기사들을 수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종교신문의 선정에 있어서도 중앙일간지와 같이 발매 부수와 연혁의 기준보다는 신문사의 논조나 특성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이 다양한 유형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한 종교 신문에서는 눈에 띄게 해당 종교에 대한 위기 이슈를 보도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종교조직별 위기 이슈 표본수에 차이가 나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연구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발행부수와 연혁과 같은 정량적 기준뿐만 아니라 신문 논조와 같은 정성적 기준 또한 매체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종교조직의 위기 유형에서 ‘자연재해’가 눈에 띄게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연구대상 기간이 코로나19가 발생한 기간(2020년-2021년)을 포함하고 있어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재해’가 물론 종교조직의 위기에 중요한 유형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연구대상 기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연재해’ 유형의 표본수가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자연재해’라 할 수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위기의 유형들인 ‘위반’, ‘사고’와 같은 유형들이 파생된 것으로 보아,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기간을 늘려서 분석한다면 더 다양한 위기 유형과 위기 대응 전략이 나타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빈도 분포 또한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신문 기사들을 사건별로 묶어 각각의 사건들을 분석하는 내용 분석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해당 기사들을 통해 나타난 종교조직의 위기 유형 및 위기 대응 전략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연구 대상 기간 동안 기사화 되지 않은 종교조직의 위기 이슈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위기 이슈가 기사화되었다 할지라도 그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분석 대상 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특히, 위기 대응 전략의 경우 위기 이후 후속 보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 연구가 분석한

모든 위기 이슈와 관련된 신문 기사에서 위기 대응 전략이 서술된 것은 아니었다. 위기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이 기사를 통해 나타나지 않은 경우 ‘침묵’으로 분류하여 코딩하였는데, 이는 ‘침묵’이 종교조직의 위기 대응 전략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이유이기도 하다. 저자는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이 신문기사에서 나타난 위기 유형 및 위기 대응 전략이었기에 위기에 대한 종교조직의 대응이 기사화되지 않았을 경우 위기에 대한 ‘무대응’으로 간주하고 위기 유형 중 ‘침묵’으로 분류하기로 판단했다. 다시 말해, ‘침묵’으로 분류된 위기 대응 전략의 경우, 실제 종교조직의 대응이 있었음에도 기사화되지 않았을 경우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내용분석으로서 종교조직별 위기 커뮤니케이션 현황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본 연구결과는 종교조직의 위기 유형 및 대응 전략에 대한 현황 파악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으나 위기 유형별 위기 대응 전략의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위기 해결 이후 이슈 관련 내용들이 기사화되는 경우는 드물기에 기사내용 분석으로 위기 대응 전략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위기 대응은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그렇기에 위기 대응 전략의 효과 평가는 중요하다. 다수의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들이 위기의 유형에 상응하는 위기 대응 전략의 효과 분석을 수행해왔다(박노일·정지연·김보경, 2012; 이진국·강지원·박종철, 2016; 방신용·황선환, 2017; 권아민·남궁영, 2021). 향후 연구들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종교매락에서 종교조직별, 위기 유형별 위기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병오 (2012). 한국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 실추 원인과 대책. *신학과 선교*, (41), 61~84.
- 강호숙 (2020). 보수기독교 내 젠더인식과 젠더문제에 관한 연구—성경적 페미니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4(2), 109~148.
- 권아민·남궁영 (2021). 외식 기업의 제품 관련 위기와 대응전략이 소비자의 부정적 정서와 부정적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30(5), 17~36.
- 김소연·차희원 (2014). 매체와 위기책임성, 그리고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공중의 위기 의식 및 위기 커뮤니케이션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8(3), 111~144.
- 김영옥 (2002). *위기 관리의 이해: 공중 관계와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 서울: 책과 길.
- 김영옥 (2003). *PR커뮤니케이션: 체계, 수사, 비판 이론의 통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영옥 (2006). 우리나라 조직의 사과 수사학: 신문에 난 사과광고문의 내용과 수용 여부분석. *광고학연구*, 17(1), 179~207.
- 김영옥 (2008). *위험, 위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준호 (2016, 4월 8일). 2021, 주지승이 7억 정부예산·뒀돈 ‘꿀찍’. *연합뉴스*, URL: <https://www.yna.co.kr/view/AKR20160407126551063>
- 김진동·김남조 (2002).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영향 분석: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6(4), 57~76.
- 김진희·성정은 (2013). 신문 사설의 장애인 관련 내용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5(2), 85~107.
- 김춘식·양승찬·이강형·황용석 (2012). *신문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보도 내용분석*.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홍락 (2012, 1월 31일). 2022, 끊임없는 쇄신, 트리엔트 공의회 그림자 지우는 유일한 길.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URL: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41>
- 김효숙 (2010). 위기 상황에서 부정적 보도의 강도에 따라 평판의 면역효과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부정적 보도의 강도와 기업 평판이 공중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4(1), 275~292.
- 김효진 (2008).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의 사설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노길명 (2010). 종교 사회복지의 성격과 과제. *종교와사회*, 1(1), 191~215.

- 민지선·최성탁 (2015). 위기 유형별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실태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12), 471~482.
- 박노일·한정호·정지연 (2012). CEO 트위터 사과메시지의 위기관리 효과: 트위터 사과여부, 사과 주체, 감성적 소구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3(3), 85~108.
- 박문수 (2010). 천주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과 천주교의 과제. *신학전망*, (171), 33~68.
- 박문수·유승무·이상철·이미영 (2020, 5월 7일). 2022. 코로나가 종교의 위기를 앞당겼다. *한겨레신문*, URL: <http://www.hani.co.kr/arti/well/news/944039.html>
- 박소연·성민정 (2020). 기업 위기 트렌드와 위기 커뮤니케이션 현황: 한국 기업의 최근 위기를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24(1), 1~32.
- 박준성·김의철·정태연 (2007). 한국사회의 종교에 대한 신뢰와 불신. *종교연구*, 49, 89~113.
- 박준성·전미연·정태연 (2010). 개신교와 천주교에 대한 신뢰와 불신. *종교연구*, 58, 101~126.
- 방신용 (2012). *스포츠조직의 위기 유형과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방신용·황선환 (2017). 프로스포츠리그의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위기대응 주체별 효과적인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맹, 구단, 선수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5(3), 79~97.
- 서명옥 (2019).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신학에 기초한 인간과 사회와 종교. *신학전망*, (207), 195~239.
- 성해영 (2015). 청소년 인성교육과 종교. *종교문화연구*, (25), 277~302.
- 안광현 (2012). 한국의 개신교 부패 현상에 대한 고찰-교회 내부 구성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신학과 선교*, 26(3), 103~137.
- 염중섭 (2018). 4차 산업 시대 한국불교의 출가문제와 미래적 대안. *선학*, (50), 111~145.
- 염창훈·구국원·권오병 (2018).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주요 종교간 '평화' 및 '통일'활동 관련이슈 비교 분석과 기독교 경영. *로고스경영연구*, 16(4), 99~116.
- 오세일 (2012). 교계제도 설정 이후 한국 천주교회: 서울대교구를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40, 99~141.
- 오태순 (1990). 신자 재교육. *신학과 사상*, (3), 160~185.
- 윤수경 (2015). 성폭력 피해 후유증 경험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6(4), 131~186.
- 이성직·김한준 (2009). TF-IDF의 변형을 이용한 전자뉴스에서의 키워드 추출 기법. *한국전자저널학회지*, 14(4), 59~73.

- 이원주 (2011). 종교단체와 성직자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와법*, 4, 59~87.
- 이진국·강지원·박종철 (2016). 효과적인 기업위기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909~937.
- 이철 (2012). 천주교 성직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본 개신교 목회자의 리더십 문제연구. *기독교교육정보*, 32, 181~203.
- 이혁배 (2005). 종교갈등, 계층갈등 그리고 신학적 과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7(1), 147~166.
- 이현우·손승우·김소운 (2010). 기업 위기상황에서의 환심 사기 전략의 효과. *홍보학연구*, 14(1), 5~32.
- 이현우·최윤형 (2014). 위기 관리에서 상황적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전개과정과 향후연구를 위한 제언. *홍보학연구*, 18(1), 444~475.
- 이호갑·기현희·이도희 (2020). Q방법론을 활용한 종교기관 운영인식유형화. *경영경제연구*, 42(3), 107~127.
- 장석만 (2000). [쟁점/한국의 지식 권력3-권력으로서의 한국 종교] 한국 종교, 열광과 침묵사이에서. *당대비평*, 209~224.
- 정원래 (2020). 종교개혁 시기의 세 가톨릭 권력자들-교황들, 카알 5세, 그리고 프란시스 1세-. *신학지남*, 87(4), 159~189.
- 정태식 (2011). 현대사회에서의 종교의 사회정치적 위치와 역할. *신학과 사회*, 25(1), 63~85.
- 정희완 (2017). 아는 것들에 대한 사유-신앙, 믿는다는 것. *사목정보*, 10(6), 18~22.
- 정희완 (2021). 코로나 시대의 신앙? 종교사회학적, 교회론적 전망에서. *가톨릭신학*, (38), 5~48.
- 조기룡 (2019). 한국사회의 종교시장화와 한국불교의 포교정향(布教定向). *불교학연구*, 58, 145~175.
- 조만제 (2017).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사태와 분석. *레프트대구*, 13, 185~204.
- 조영현 (2010). 21세기 라틴아메리카 종교 파노라마 : 위기에 처한 가톨릭교회. *라틴아메리카이슈*, 2, 267~281.
- 조현범 (2010). 현대 한국 천주교의 종교적 특성에 관한 고찰. *정신문화연구*, 33(1), 183~212.
- 한국리서치 (2021). 2021 종교 인식 조사-종교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 *한국리서치주간리포트*, 158(2), 1~17.
- 한영만 (2020).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협력: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와 국민 건강권에 대한 조화. *법학연구*, 20(2), 31~61.

- 홍승진 (2020). 코로나-19와 신천지, 신성의 결핍을 파고든 사이버. *월간 공공정책*, 177, 76~81.
- Coombs, W. T. (1995). Choosing the right words: The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the selection of the "appropriate" crisis response strategies. *Management Communication Quarterly*, 8(3), 447~476.
- Coombs, W. T. (2001).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이현우 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Coombs, W. T. (2007). Attribution theory as a guide for post-crisis communication research. *Public Relations Review*, 33, 135~139.
- Coombs, W. T., & Holladay, S. J. (1996). Communication and attribution in a crisis: An experimental study in crisis communication.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8(4), 279~295.
- Coombs, W. T., & Holladay, S. J. (2002). Helping crisis managers protect reputation a lassets. *Management Communication Quarter*, 16(2), 165~187.
- Coombs, W. T., & Holladay, S. J. (2007). The negative communication dynamic: Exploring the impact of stake holder affection behavioral intentions. *Journal of Communication Management*, 11(4), 300~312.
- Coombs, W. T., & Schmidt, L. (2000). An empirical analysis of image restoration: Texaco's racism crisi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12(2), 163~178.
- Kathleen Fearn Banks. (2005). *위기관리 PR 커뮤니케이션*. 최양호, 이명천 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Legg, K. L. (2008). *Crisis communication in the local church: A macro look at church crises and application of chaostheory*. Regent University.
- McGregor, J., & Harvey, J. (1999). The rise of sport PR in New Zealand. In *Sport business management in New Zealand* (pp. 248~258). Palmerston North: Dunmore Press.
- Shilbury, D., Quick, S., & Westerbeek, H. (1998). *Strategic sport marketing*. St. Leonards, NSW: Allen & Unwin.

논문투고일: 2022년 08월 26일

논문심사일: 2023년 01월 10일

게재확정일: 2023년 01월 10일

Abstract

Crisis Types and Crisis Response Strategies in Religious Organizations Revealed through Newspaper Articles^{*}

Focusing on Buddhism, Catholicism, Protestantism

Lee Youngseung^{}**

Priest, Archdiocese of Daegu

Sojung Kim^{*}**

Associate Professor, Dept. of Media & Communi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categorize crisis situations that religious organizations was faced with and analyze crisis response strategies that they used in the crisis situations reported through newspaper articles. Coombs' 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 (SCCT) was used as an analysis framework. Crisis reports in newspaper articles were classified by incident unit and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s that crises of religious organizations in Korea were classified into seven types: rumors, natural disasters, malice, challenges, accidents, violations, and threats to doctrine, and among the types of crisis, the case of violation was found to be the highest. It further suggests that crisis response strategies where religious organizations have been using were categorized into eight types: apology, improvement, justification, excuse, denial, attack, silence, reflection and renewal, and silence appeared to be the main crisis response strategy. This study theoretically contributes to the current literature concerning crisis communication by attempting to classify crisis type and the type of crisis response strategies in the context of religious organizations.

KEY WORDS Crisis Management • Crisis Communication • Religious Crisis • Crisis Type
• Crisis Response Strategies • Content Analysis

* This research is written based on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 First Author, passtory@knu.ac.kr

*** Corresponding Author, sojungkim@knu.ac.kr